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

이재형*

• 목 차 •

- I. 시작하는 말
- II. 창간 당시 불교계 안팎 상황과 『법보신문』 성격
- III. 창간 과정에서 월산 스님 역할과 불교언론관
 - 1. 월산 스님과 『법보신문』 창간
 - 정휴 스님 인터뷰를 중심으로
 - 2. 월산 스님의 불교언론
- IV. 『법보신문』의 월산 스님 유지 계승 활동
 - 1. 탄생과 성장(1988~2005)
 - 2. 독립언론의 길(2006~2021)
- V. 맺는 말

* 법보신문 편집국장.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159-190.

한글요약

성림당 월산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전환기에 산문에 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대표적인 고승이다. 월산 스님은 선원과 강원을 개원해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혼탁해진 사찰을 일신하려 애썼다. 또 총무원장·종회의장·원로회의 의장 등 조계종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고자 했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월산 스님의 뚜렷한 업적이 바로 『법보신문』 창간으로 이는 월산 스님의 일생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초대 발행인이었던 월산 스님은 1988년 5월 16일 『법보신문』을 창간하면서 ‘존경진리(尊敬眞理), 굴복아만(屈伏我慢),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사훈으로 『법보신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양하고, 불교계 안팎으로 팽배해있는 아집과 교만심을 항복받으며, 옳고 밝은 것을 드러내고 널리 퍼라는 의미였다. 또 월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나를 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자대비의 불을 밝혀야 한다.’의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불교언론이 현대불교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바람직한 수행·신행문화를 견인하는 전법사 역할, 불교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비불교적 행위와 훼손에 적극 대응하는 호법신장 역할,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불교 책임자 역할까지 다하라는 준엄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법보신문』은 창간 이후 불교계의 폐단에 대한 과감한 비판으로 불교개혁을 주도했으며, 곳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자 했다. 기복신앙을 끌어안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지성불교·수행불교·주체적 불교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또 비불교적인 행위와 훼손에 맞섰으며,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공감과 격려, 비난과 질책이 잇따랐으며, 끊이질 않는 민·형사 소송과 수차례의 폐간 위기를 겪기도 했다.

월산 스님은 발행인 창간사에서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굶힘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는 목탁을 만들었다. … 『법보신문』은 목탁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법보신문』이 불교적인 정체성과 불교언론의 사명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하며, 사훈인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법보신문』은 단순히 신문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불자들이 행복하고 불교계가 건강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불교언론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과 그동안 『법보신문』 창간을 이끌고 유지해왔던 이들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

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제어

월산 스님, 법보신문, 불교언론,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 정휴 스님, 독립언론

I. 시작하는 말

20세기 한국사가 격변의 시기였듯 한국불교사도 마찬가지다. 승유억불의 500년 긴 암흑기를 빠져나온 불교계가 수많은 정치적 탄압과 편향을 딛고 급성장한 것은 기적이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배후에 있었던 개신교와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가톨릭에 비해 불교는 아무런 지지 세력도 갖지 못했다. 미군정, 이승만 정권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우대했고, 불교계에는 차별과 분열을 획책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적산불하(敵産拂下), 군종장교제도, 기독교단 신일 공휴일 제정, 종교방송 독점 및 장악, 형목·경목제도 등이 기독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군사정권 때도 개신교계와 가톨릭계의 눈치를 보았던 반면 10·27법난과 같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불교계를 이용하고는 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 가장 세력이 컸던 천도교와 보천교를 넘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1960년 128만9000명(『서울연감 통계자료』), 1985년 국가차원의 첫 종교인구 통계에서는 불자가 805만 명에 이르는 등 한국의 주류종교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불교의 중흥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많은 스님과 재가불자, 불교단체들 그리고 종단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님들은 수행, 계율, 법문 등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불교의 위상을 높여나갔으며, 재가불자들은 지극한 신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술, 사회활동 등을 통해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불교종단도 내부 갈등 및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포교, 교육, 복지, 문화, 사회참여, 성보의 국가문화재 지정, 신도들 결속력 강화, 사회적·정치적 역할 확대 등 다방면에서 불교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성림당 월산 대종사(聖林月山, 1913.5.1.~1997.8.5)는 한국불교의 전환기에 산문에 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대표적인 고승이다. 월산 스님은 금오선사의 법을 이은 선사로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선원과 강원을 개원해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법주사, 신흥사, 동화사, 불국사 등 본사 주지를 맡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혼탁해진 사찰을 일신하려 애썼다. 또한 총무원장·종회의장·원로회의 의장 등 조계종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고자 했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월산 스님의 뚜렷한 업적의 하나로 『법보신문』 창간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월산 스님의 일생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월산 큰스님의 조계종단 및 불교계에 대한 애정은 불교언론인 『법보신문』 창간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계에 오직 『불교신문』만이 제대로 활동을 할 때에 과감하게 『법보신문』을 창간하여 불교언론의 기반을 넓히고, 조계종단에 대한 애정을 구현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월산 큰스님의 결단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런 측면도 큰스님의 생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 발행인이었던 월산 스님은 1988년 5월 16일 『법보신문』을 창간하면서 ‘존경진리(尊敬眞理), 굴복아만(屈伏我慢),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사훈으로 『법보신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양하고, 불교계 안팎으로 팽배해있는 아집과 교만심을 항복받으며, 옳고 밝은 것을 드러내고 널리 퍼라는 의미였다.

이는 불교언론이 현대불교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바람직한 수행·신행문화를 견인하는 전법사 역할, 불교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비불교적 행위와 훼손에 적극 대응하는 호법신장 역할,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불교 책임자 역할까지 다하라는 준엄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법보신문』은 창간 이후 불교계의 폐단에 대한 과감한 비판으로 불교개혁을 주도했으며, 곳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자 했다. 기복신앙을 끌어안되 기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성불교·수행불교·주체적 불교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또 비불교적인 행위나 훼손에 맞섰으며,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공감과 격려, 비난과 질책이 잇따랐으며, 끊이질 않는 민·형사 소송과 수차례의 폐간 위기를 겪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법보신문』을 창간할 당시의 불교계 안팎의 상황, 월산 스님의 역할과 언론관, 『법보신문』 창간 과정 및 성격, 창간 후 지금까지 『법보신문』의 활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덕민 스님, 「월산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토론문,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p.210.

II. 창간 당시 불교계 안팎 상황과 『법보신문』 성격

『법보신문』 창간은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변혁의 시대에 이뤄졌다. 1987년 6·10민주항쟁을 기점으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사회 각계에서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됐다. 언론계도 큰 변화를 맞았다. 그동안 언론계는 신군부가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부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으로 인해 움짱달짱 못했다. 이 법은 표면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랐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의무제, 문화공보부장관의 발행정지 명령권 및 등록취소 권한 등의 독소 조항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편집인과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기간행물을 편집하거나 광고를 함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을 배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합법화했다.²⁾ 이 법은 신군부 시대를 종식시킨 6·29선언 이후인 1987년 11월에 이르러서야 폐지됐다. 대신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문 창간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열망이 거셌다. 1970년대 중반 싹트기 시작한 민중불교 운동이 1980년대 초반 본격화되면서 한국불교는 사회와 민중을 향해야 한다는 불교의 사회참여 의식을 확산시켜나갔다. 스님들도 1981년 7월 전국청년승려육화(六和)대회, 1982년 6월 전국학인승가연맹 발족, 1983년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회 등을 통해 스님과 재가불자가 협력해 불교계 개혁을 이끌어 나갈 역량 확보를 적극 모색했다. 이런 노력들은 1985년 5월 민중불교운동연합의 창립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전국 각지의 소장 스님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민중불교운동연합은 불순단체로 낙인찍혀 진행되는 난관을 겪으면서도 불교개혁 및 민주화운동을 주도해나갔다.

이와 함께 1986년 6월 221명의 스님이 발기해 창립한 정토구현전국승가회도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주축세력으로 성장했으며, 1986년 9월 7일 해인사에서 2,0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승려대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승려대회에서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교계의 자율성을

2) 「언론기본법」,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박탈한 불교재산관리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또 불교계 내부 문제만 아니라 부친 경찰서 성고문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다. 9·7해인사승려대회는 불교계가 정권의 예측에서 탈피해 자주화와 민주화를 선언하고 사부대중에게 불교계의 민주화가 사회민주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민중불교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³⁾

그러나 불교언론은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불교계의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기가 버거웠다. 당시 불교언론을 대표하는 것은 『대한불교』이었다. 1960년 창간된 『대한불교』는 조계종 기관지로 1980년 10·27법난을 겪으며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됐지만 곧바로 1980년 12월 『불교신문』으로 제호를 바꾸며 이어갔다. 그러나 『불교신문』은 중단 기관지라는 특성상 비판 기능이나 불교계 안팎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웠다. 다만 1982년 4월 재단법인 화쟁교원이 발행주체로 창간한 격주간 신문 『불교회보』(1986년 5월 20일 『주간불교』로 제호 변경)가 불교계 내부 비판 및 범불교계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했지만 규모나 확산력에서 한계가 있었다.

변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개혁, 불교민주화, 불교사회화, 불교대중화라는 열망과 특정 종단의 틀을 넘어 불교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범불교 신문이 있어야 했다. 때마침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신문 창간이 수월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경주 불국사는 새로운 언론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고, 그것은 불국사 조실 월산 스님의 원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산 스님의 총괄 아래 실무는 정휴 스님이,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종상 스님이 맡았다. 때로는 월산 스님이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불교언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⁴⁾ 이런 과정을 거쳐 3월 26일 문화공보부 등록(다-504호)을 필한 뒤 곧바로 직원들을 채용했고, 5월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본사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보신문』 제호는 한국 서예계의 권위자인 조정 권창륜이 썼으며, 창간

3) 김순석,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p.330.

4) 당시 문화공보부 종무관으로 재직했던 이용부씨는 2021년 8월 3일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때 기록한 메모장을 확인한 결과 1988년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현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월산 스님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 월산 스님도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월산 스님은 범불교지의 필요성과 불교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신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호는 5월 16일자로 발행됐다. 창간호 1면에 게재된 사령(辭令)은 다음과 같다.

김종원 명 부사장 / 김중상 명 사장직무대행 / 김정후 명 주간검주필 / 조오현 명
상임논설위원 / 선원빈 명 편집국편집국장 / 배정학 명 업무국총무부차장 / 김춘송
명 업무국업무부차장 / 최승천 명 편집국기자 / 최중홍 명 편집국기자 / 김영태 명
편집국기자 / 이학중 명 편집국수습기자 / 김민경 명 편집국수습기자 / 김영렬 명
편집국수습기자 / 박정미 명 경리사원 / 광덕현 명 사원 / 손혜자 명 사원

(4월 25일자)

『법보신문』의 발간 취지와 배경은 창간호 2면 「사설-千手千眼의 巨步」에 잘 나타난다. 이 글은 『법보신문』 창간에 대한 우리의 각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법보신문』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과 신문 창간을 주도한 당사자들의 시대 인식, 언론관, 편집방향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전문을 제시한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열어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혁의 질서를 정립하는 일이다. 한 생명이 탄생되는 데도 아픔과 진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 역사의 변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구시대 악습과 폐단을 청산하고 나아가 사회 구석 구석 만연돼 있는 비인간적 병리를 제거하는 결의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체질화시키는 思考의 전환을 할 때 창조나 자기쇄신이 이룩되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할 지라도 모든 것을 서둘러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걸맞는 시간이다.

그동안 유폐되었던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회복하고 진실한 표현의 자유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존의 지혜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와 불교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범불교지인 『법보신문』을 창간한다.

『법보신문』은 앞으로 사회 속에 제기될 다원화된 가치의 혼란을 막고 이 시대의 참다운 정신사를 주도할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불교계 언론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계 언론매체란 각 종단의 기관지로서 자기 교단 권익을 옹호하는데 국한되어 있어 진실한 언론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 불교도의 목소리와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 신문의 창간을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불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향유할 정신문화를 창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불교는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와 반면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 護國安民의 정신을 발휘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법보신문』은 불교도의 권익과 증흥에 노력할 것이며 민족의 고통에 뜨겁게 동참하여 그 고통을 구제하고 증생을 饒益케 하는 서원을 지켜가면서 부처님 사상으로 참다운 인간정신을 깨우치는 진리의 公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본래 언론이란 민주적 사명을 지니는 사회적 공기이다. 신문에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도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의를 바탕으로 역사적 양심을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白眼의 巨人보다 더 광활한 보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바른 생각, 바른 말로 이 시대 인간 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千手千眼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 것이 『법보신문』의 발원이다. 그리고 편협한 보도와 편집을 지양할 것이며 명실공이 범불교지로서 전 불교도의 목소리를 담아 이천만 불자가 주인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할 것이다. 특히 붓에는 直筆과 曲筆이 있다. 우리는 阿世하는 지성을 배척하고 역사의 義와 不義를 준엄하게 분별하는 春秋筆法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 언론은 단순한 사회의 公器로서가 아니라 부처님 法音을 전달하는 포교적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 포교의 현대화는 이 시대 불교인의 바램이다. 그리고 포교의 대중화가 이룩될 때 불교인의 의지도 새롭게 계도될 것이다. 현재 우리 불교는 역사와 전통은 깊지만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는 역사의식이란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가치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자기비판의 겸허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국가와 사회는 비리와 야합하지 않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역사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祖師들이 지녔던 用無生死의 기개와 신념을 바탕으로 言論大道의 본령을 지킬 것이다. 적당히 눈치나 보고 역사와 사회의 비리를 묵인하는 阿世의 지성을 배척할 것이며 진실을 위해서는 罵과 棒으로 이 시대 비양심적 행위를 깨우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覺醒이 붓 끝에 솜리가 나왔다고 했듯이 바로 이것이 불교언론 정신임을 깊이 깨닫고 붓이 인간의 진실과 정의를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원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범불교적 뉴스와 아울러 사부대중의 총체적 삶을 집합하고 수렴하여 현대 불교 발전에 모체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참신한 필자를 개발하고 불교와 관련 있는 사회 정보를 전하여 불교인의 권익을 사회 속에 높여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발원이 결실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사부대중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이다. 전 불교도의 아낌없는 참여가 있을 때 『법보신문』은 새 역사의 목탁으로 책무를 다하는 정직한 언론의 길을 갈 것이다.

옛부터 문장은 經國大業이요 不朽盛事라고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만의 일이 아니라 언론 그 자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올바른 말과 글이 있을 때 참다운 經國이 이루어짐을 명심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獅子吼의 첫 장을 연다.⁵⁾

창간 사실에는 변혁의 시기에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각 불교 언론이 종단의 기관지로서 자기 교단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불교도 전체의 권익과 중흥에 노력할 것, 편협한 보도와 편집을 지양할 것, 포교의 현대화 및 대중화에 적극 나설 것, 비리와 야합을 묵인하지 않을 것 등 각오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법보신문』은 이후 진보적인 스님들과 지식인들을 필진으로 기용하고 기관지에는 실리지 못했던 불교계 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수용해 기사화했다. 창간과 더불어 『법보신문』은 불교개혁의 구심점이었으며, 종단개혁으로 이어지는 가교였다. 『법보신문』은 비판이 거세되고 찬양 일색이었던 종단 기관지들과 차별화되면서 불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교계 내의 유력한 매체로 부상했다.

Ⅲ. 창간 과정에서 월산 스님 역할과 불교언론관

1. 월산 스님과 『법보신문』 창간 - 정휴 스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휴 스님은 직지사, 동화사, 불국사, 법주사 승가대학 강사를 지냈으며,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조부문에 당선돼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적멸의 즐거움』, 『백담사 무문관 일기』 등 많은 작품을 남긴 중진작가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중앙총회 의원을 7차례 역임하면서 종단 운영에 깊이 참여했다. 또한 불교신문 편집국장·주간·주필·사장을 역임하고, 『주간불교』 창간 및 『불교방송』 개국의 주역이기도 하다. 정휴 스님은 『법보신문』 창간 과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창간 발의·논의·기획의 첫 단계에서부터 참여했으며, 창간 후에는 편집 방향과 기사 게재 결정 여부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

5) 창간호 사실은 당시 주간·주필이었던 정휴 스님이 썼다.

자인 주간·주필을 맡았다.

필자는 이번 논고 작성을 위해 2020년 6월 10일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정휴 스님을 만나 『법보신문』 창간 당시 상황과 월산 스님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휴 스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월산 스님은 어떤 분이었나.

- 선과 교를 모두 갖추셨다. 한역 경전을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셨다. 중국선사들 중에는 거칠고 야성적인 성품을 지닌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고 자애로운 분들이 있다. 조실스님(월산 스님)은 자애로운 선사였다.

▶ 『법보신문』 창간 당시 상황은 어땠나.

- 그때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적으로 개편됐다.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울분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불교도 전통적인 의식과 제도 속에 갇혀 있다가 그 틀을 깨고 현대화의 첫발을 디딤과 동시에 사회참여의 문호를 대폭 확대해 불교의 자주화를 이루는 것이 과제였다. 불교계를 움직이려는 법들을 폐지하고 자주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야 했다. 사회참여의 길을 확대하고 현장의 소리와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시점이었다. 다른 본사에서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국사는 깨달음의 가치추구와 자기완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깨달음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하는 견인차 역할의 신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월산 스님은 신문 창간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

- 노장께서는 일생을 선사로 지내셨는데 선이 깨달음에만 집착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셨다. 깨달음을 중생 속에서 회향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셨다.

▶ 월산 스님이 창간과정에서 강조했던 것이 있나.

- 불교정화 이후 중단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었는데 이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것이 도제양성이었다. 사람을 키우는 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는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열린 안목을 가진 눈 밝은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실스님의 원력이었다. 그런 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도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서 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이다.

▶ 월산 스님에게 『법보신문』 창간을 제안한 것이 스님이었다.

- 불국사 전체 불사를 추진하는 중심에는 종상 스님이 있었다. 조실스님에게 건의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긴 분이었다. 그때 종상 스님과 내가 뜻을 같이 했고 조실스님께 건의했더니 좋은 일이라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제안했다기 보다는 나와 종상 스님의 뜻이 맞았고, 종상 스님이 건의한 것을 조실스님이 받아

들이신 것이라고 봐야한다. 조실스님의 결단과 종상 스님의 실행의지가 있었기에 신문이 창간될 수 있었다.

▶ 『법보신문』 제호는 누가 정한 것인가.

- 조실스님께 (신문제호를) 건의하니 이 건 진리를 상징하는 신문이 되어 하니까 『법보신문』으로 해야 한다며 제호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교언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 화불, 파불, 부조리에 맞서겠다는 것도 천명하고 계셨다. 예나 지금이나 『불교신문』은 기관지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전체 불교를 아우를 수 있는 진리의 그릇을 담는 불교의 큰 목탁이 필요하다는 조실스님의 신념에서 범불교지로 출범한 것이다.

▶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라는 사훈은 월산 스님이 직접 지은 건가.

- 그렇다. 존경진리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앞에 평등하니까 진리를 존중·공경하라는 것이며, 굴복아만은 자기를 앞세우는 이기심에 굴하지 말라는 것이고, 공명정대는 어떤 상황이라도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뜻이었다.

▶ 월산 스님의 신문 창간 승낙 이후 창간 과정에 참여한 인물은 누구인가.

- 선원빈 국장이다. 선 국장은 『불교신문』에서 봉사하다가 나와 함께 『주간불교』를 창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법보신문』을 같이 만들자며 데려왔다. 그분은 취재, 기사작성, 편집기술에 있어 최고 전문가였다. 창간을 하는 데는 2개월 정도 걸렸다. 선 국장이 글을 많이 쓰고 연재도 많이 했다. 그는 인간적인 자세가 속인이라 기보다는 잘 다듬어진 운수남자와 같았다. 신문을 만들 때면 둘부처처럼 신문 제작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누구하고 마찰해서 다투지 않았다.

▶ 무산(오현) 스님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 무산 스님은 정신적으로 기대는 사람이다. 무산 스님의 성격상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고 내가 글 한편 쓰라고 하면 썼다. 신문이 나오면 선 국장하고 무산 스님하고 같이 신문에 대해 총평하고 그랬는데 이때 무산 스님이 은유적으로 지적도 하고 방향도 얘기하고 그랬다. 이용부 문화공보부 종무관도 창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 창간 이후 신문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

- 평이 굉장히 좋았다. 기사와 필진에 있어 기관지와는 명확히 차이가 났다. 그곳에서 실릴 수 없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실렸다. 조계종 기사가 무게가 떨어지고 다른 종단 기사가 비중이 있으면 그것을 톱으로 다뤘다. 종단의 벽을 허문 것이다. 『주간불교』가 범불교지를 지향했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간 것이 『법보신문』이었다. 세계일화, 일불제자, 통불교를 강조했던 조실스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창간 당시 어려웠던 점은.

- 편집상의 문제보다 경영상의 문제였다. 그 무렵 신문사 운영비가 매달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 광고료와 구독료가 많지 않았다. 종상 스님이

그걸 뒤에서 다 뒷받침해줬다.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매달 2500만원의 운영비를 냈다. 조실스님의 지지와 중상 스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신문사가 운영될 수 없었다.

▶ 조실스님이 편집방향이나 기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다.

- 조실스님은 종종 신문에 오셔서 전 직원들과 식사를 하시고는 했다. 『법보신문』에서 (종단 실권자들을 향해) 불편한 소리와 가차 없는 비판을 하다 보니 조실스님에게도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갔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언급하신 일이 없고 철저히 독립권을 지켜주셨다. 이런 점은 기자들보다 조실스님이 더 분명했고 늘 외풍을 막아주려고 하셨다. 다만 편집방향과 관련해 선(禪)에 대한 비중을 늘렸으면 하셨고 우리는 조실스님의 말씀을 신문에 많이 반영하려 했다.

정휴 스님의 인터뷰 내용에는 월산 스님이 단순히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법보신문』 제호와 사훈을 손수 정했으며 비판적 언론 및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범불교지를 표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을 비롯한 불교의 대중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켜주려 했음이 잘 나타난다.

2. 월산 스님의 불교언론관

금오 스님(金烏太田, 1896~1968)은 경허, 만공, 보월 스님의 법을 이은 정통 선의 계승자이며 정화운동의 선두에서 비구승을 진두지휘했던 주역이었다. 금오 스님의 제자로 그 법을 이은 월산 스님도 정화 당시 목숨을 걸고 스승의 뒤를 따랐으며, 치열한 정진으로 화두를 깨쳐 스승의 법을 이은 선의 종장이었다. 금오 스님이 그랬듯 월산 스님도 종단 내 비불교적인 모습과 폐단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선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안주하지 않았다. 선을 대중화하고 선을 통한 깨달음을 사회 속에서 펼쳐나가고자 부단히 애썼다. 그것은 종단에 대한 애정과 중생구제의 비원에서 비롯됐으며, 『법보신문』 창간도 마찬가지다.

월산 스님은 1988년 5월 16일부터 1991년 6월24일까지 약 3년간 『법보신문』의 발행인을 맡았다. 이 시기 『법보신문』에 스님의 신춘인터뷰 및 해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지만 스님의 친필이 게재된 것은 창간사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월산 스님의 언론관과 『법보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가 잘 나타난다.

부처님은 큰 빛을 밝히시나 세상은 아직 어둡고 부처님의 말씀은 있으나 귀멸은 이들은 듣지 못한다. 經을 외우고 道를 닦는 일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행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위로는 하늘의 境界에서 아래로는 바다의 밖까지 사람이 사는 일은 물론 微物의 것까지도 골고루 幸과 福을 미치게 하는 것이 참 佛心이요 佛法이다.

法寶新聞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三千大千世界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태어났다. 저 해와 같은 光明을 빌어 無量의 소리를 담은 木鐸을 깎았다.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굶힘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는 목탁을 만들었다. 등그나 모나지 않고 곧으나 빼뿔어짐이 없으며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샘물처럼 넘치는 목탁을 빚었다.

法寶新聞이 다만 佛家の 通信일 수만은 없다. 불자의 讀本일 수만은 없다. 나라의 구별이 없고 人種을 넘어서는 위에 宗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大乘, 아니 大乘의 超越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나’를 淸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썩은 齒牙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부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先決되어야 한다. 木鐸은 그 울림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가지 않는가. ‘나’부터 맑게 하면 그 소리가 밖에도 맑게 들릴 것이요, ‘나’를 깨끗이 못하면 소리가 濁해져서 아무도 귀 기우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둘째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한다. 집이 새면 안에서 비를 막을 수는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서부터 힘을 갖는다. 自由며 平等이며가 모두 佛法의 根本이니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民主主義야 한낱 걸가지가 아니겠는가. 목탁을 두드리는 손은 다르나 그 소리는 한가지로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 또한 멀고 가까움이 없이 한결같은 소리로 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셋째 統合을 이뤄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斷絶의 不連續線 위에서 살아왔다. 南北이 갈라진 위에 다시 三分五裂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不幸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木鐸은 하나의 圓일 뿐 둘로 쪼개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조각난 마음을 하나로 묶는 木鐸이 되고자 한다.

넷째 大慈大悲의 불을 밝혀야 한다. 짓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木鐸은 제 소리를 내야 한다. 衆生을 救濟하는 眞理를 부처님은 깨달으셨고 行하셨다.

부처님의 사랑 안에 오늘의 백성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公器로서의 木鐸이 되고자 한다. 法寶新聞은 木鐸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새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自由로울 것이다. 부처님의 法道를 지키면서 公論을 이끌어 나라의 平和, 인류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것이다.⁶⁾

월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법보신문』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삼천대천세계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태어났으며, 저 해와 같은 광명을 빌어 무량의 소리를 담은 목탁을 깎았다고 했다. 또한 불가의 통신, 불자의 독본을 넘어 나라의 구별이 없고 인종을 넘어서는 위에 종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대승은 물론 대대승(大大乘)의 초월을 실천하려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창간사는 창간 사설과 더불어 『법보신문』을 만든 월산 스님의 원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이 글은 월산 스님의 기명으로 게재됐다는 점에서 발행인으로서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월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나’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자대비의 불을 밝혀야 한다.’의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월산 스님이 『법보신문』의 초대 발행인으로서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나를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성찰하라는 뜻으로 불교정화운동의 이념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나’는 청정해야 할 주체로 신문사 구성원은 물론 불교계 전체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썩은 치아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부터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다음 구절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불교계가 먼저 자신의 썩은 치아를 뽑아내고 잘못을 바로 잡을 때 국가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고 중생구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 비판정신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월산 스님 스스로도 1969년 8월 10일과 8월 17일 『대한불교』에 2회로 나누어 기고한 ‘비구는 다시 채검토할 때가 왔다; 종단은 사부대중의 것’이라는 글에서 당시 조계종단 내부에 횡행하는 무질서, 반승가적 활동, 무이념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⁷⁾ 잘못된 일에 대해선 서슴없이 비판하고 기꺼이 비판을 받으려고 했던 월산 스님은 불교계

6) 월산 스님, 발행인 창간사, “대자대비의 등불 밝힐터…”, 『법보신문』 1988년 5월 16일자.

7) “조계종단 역사에 이렇듯이 공개적으로 종단을 비판한 고승은 매우 적다. 이는 월산이 금오의 정화정신을 계승하고, 그 자신도 정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애종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제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p72.

가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수용하는 데에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역사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그것은 하나의 반성이며 책임이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야. 正思惟, 正語란 바로 보고 생각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正語인데도 우리 수행인들은 올바른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데도 인식해. 이언적이란 선비는 忠諫하는 말과 정직한 이론은 신하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이라고 했듯이 오늘의 수행자도 약한 다수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헌신적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지도자일수록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스승처럼 섬기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거든 선행을 흠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⁸⁾

월산 스님의 창간사와 창간사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언론의 비판기능이다. 월산 스님은 비판문화가 종단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새롭게 창간하는 신문이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임을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신행과 수행문화를 제시함으로써 불자들이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둘째,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불교 언론이 종교의 틀을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도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의 이념을 충분히 아우르고도 남는다는 월산 스님의 무한한 자긍심을 살펴볼 수 있다. 불교계가 대정치·대사회적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대정신도 역설하고 있다. 월산 스님은 이후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불교계가 그동안 국가·사회발전이라는 본래적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불교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제 불교도 소승적 안목과 집착에서 벗어나 사회구원의 지평을 넓힐 때가 됐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불교는 본래적 책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집안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 80년대 역사의 변화를 슬기스럽게 수용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늘의 변혁을 대처해 나아갈 개혁의 주체세력도 없고 90년대 불교의 좌표와 방향을 집

8) 불교선원 조실 최월산큰스님 신춘인터뷰, 대담 : 김정휴, 『법보신문』 1991년 1월 1일자.

행부와 종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만약 지금처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때에 불교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역사의 변혁을 외면한다면 불교는 이 땅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거야. 지금이야말로 사고와 의식의 혁명적 전환을 통해 교단을 혁신해야지.⁹⁾

월산 스님의 관점은 오랜 세월 화두를 들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온 선 수행자라는 점에서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선이 개인의 완성을 넘어 사회 속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월산 스님은 불교계가 국가와 사회 속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불교 언론의 중요한 역할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단절과 배타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포용성을 적극 지향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월산 스님은 출가 이후 참선수행을 지속했고 깨달음 이후에도 입적 때까지 남자들을 지도했던 선승이다. 자신이 머무는 방에 육조 진영을 모셨으며, 하동 쌍계사 육조정상탑을 매년 거르지 않고 참배했을 정도로 스스로 육조혜능의 후학임을 늘 자부했다.¹⁰⁾ 그럼에도 월산 스님은 놀랍도록 열린 사고를 견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기복불교나 무당불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기복(祈福)이란 말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복 받고 건강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중생들은 모두 노독심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승화하느냐가 문제가 되지요. 개인의 행복과 영달에서 사회전체의 행복과 영달을 추구하게 하는 보살 사상도 역시 차원 높은 기복이지요. 흔히 기복불교를 욕하는데 진정한 기복의 의미를 아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부처님도 중생의 의원이 되고 빛이 되고 식량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했거든.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도 하고 병원도 만들고 무당불교든 무엇이든지 부처님의 명호아래 모여서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참선하는 이는 참선 잘하고 사판(事判)하는 이들은 일 잘하고 그게 다 불교 발전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지요. ... 내 개인으로는 화두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교 전체를 바서는 여러 가지 모든 종파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불교 전체가

9)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큰스님 신춘인터뷰, 대담 : 김정휴, 『법보신문』 1990년 1월 1일자.

10) 운성 스님,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p.207.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불교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장은 수도장답게 포교당은 포교당답게 각기 특징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¹¹⁾

월산 스님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대로를 인정한 채로 중생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통합이라고 보았다. 그럴 때 화합할 수 있으며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보신문』이 특정 종단의 입장에서 벗어나 범불교지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은 시대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방편이 아니라 월산 스님의 평소 지론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자대비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중생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중생은 짓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국민과 인류 전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실권자들이나 저명한 이들의 목소리만 담아낼 게 아니라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것이 곧 부처님이 깨닫고 실천한 진리라는 것이다.

월산 스님이 창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 사회참여, 통합, 대자대비는 곧 수행, 포교, 화합, 보살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제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실천 강령인 동시에 불교언론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IV. 『법보신문』의 월산 스님 유지 계승 활동

1. 탄생과 성장(1988~2005)

『법보신문』은 1988년 5월 16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33년째 매주 발간해오고 있다.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이 밝힌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의 실현을 목표로 한국불교가 청청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길을 걷

11)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엄화실의 미소 - 월산』, 『월간 해인』 31호, 1984.9.

고자 했다. 교계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비불교적, 비승가적인 요소들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외압에 꺾이지 않으려 했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해묵은 관행의 고리를 끊고자 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와 새로운 불교 흐름을 만들어갈 비판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 불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대승불교승가회가 추진하는 노동·인권운동이나 불교인권위원회의 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 등 재야단체 활동을 머리기사로 실었다. 인권·재야·청년단체 및 일반불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관련 기사를 적극 담았었고, 그 목소리를 결집시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자 노력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타종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해 과감한 비판과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시도는 공감과 찬사를 받는 동시에 총무원 출입 금지를 비롯한 불교계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예의주시토록 했다. 당시 활동했던 『법보신문』 기자의 회고는 그때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정부 집권층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기사가 1면 머리를 장식하기도 했지요. 당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종로서 등의 ‘관선기자’(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기관원의 별칭)들은 이번 신문엔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며 물어오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법보신문』 기사의 크기나 논조, 그리고 기자들의 움직임이 기관 정보 보고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¹²⁾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언제든 연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법보신문』 기자들은 1992년 4월 7일 불교계 언론 최초로 기자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고, 이를 통해 비불교적·비승가적 행위와 타락·부정부패를 거부하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도덕적 결단으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국민과 불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며,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고 정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¹³⁾ 이는 월

12) 「장간 30주년 특별인터뷰 -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부문사장」, 『법보신문』 2018년 11월 28일자.

13) 『법보신문 기자 윤리 강령』

1. 언론자유의 수호

가. 우리는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

산 스님의 『법보신문』 창간 이념으로서 지금도 『(주)법보신문사 사규 및 취업규칙』의 제97조(윤리강령)에 ‘언론 본연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보신문』 기자 윤리강령을 채택, 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대한 심의는 편집국장, 부·차장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법보신문』은 윤리강령 제정 후 과사현정의 비판에 더 적극 나섰다. 1992년 MBC가 10년 넘게 지속해오던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의 선교방송 저지를 위해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 등과 연대해 2개월에 걸친 끈질긴 보도를 통해 부당함을 알림으로써 결국 방송중지를 이끌어냈다. 1993년에는 17사단 전차대대에서 불상을 쌀 포대에 담아 야산에 버린 훼손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보신문』은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불교계의 공분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장로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정권(1993~1998)이 부활절을 내세운 김정고시 일정 변경, 대통령 국방부 예배 참석 등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집요하리만치 파고들어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

력을 다한다.

나. 우리는 수사 정보기관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제작과 관련한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2. 보도의 책임

가. 우리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한다.

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 등 모든 부문의 중대사에 관하여 국민과 불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힌다.

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며, 정법구현에 앞장선다.

라. 우리는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마.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바.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기사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

3. 품위유지

가. 우리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을 정중히 사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나.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다. 우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라. 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도,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1994년 중단개혁 때도 『법보신문』은 두드러졌다. 신문발행 중단이라는 초유 사태를 겪으면서도 기자들은 『편집국뉴스』를 발행해 개혁의 염원을 모으고 실천을 이끌어냈다. 『법보신문』은 중단개혁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히 알렸으며, 이로 인해 뜨거운 지지와 후원이 이어졌다.¹⁴⁾ “조계종분규가 중단개혁의 물꼬를 튼 데는 분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곳곳한 자세로 필봉을 휘둘렀던 『법보신문』 기자들의 공도 크다”는 일반 언론의 평가도 있었다.¹⁵⁾ 『법보신문』은 불교개혁의 상징이었으며, 불교의 자주성과 권익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 물러섬이 없는 한국불교의 든든한 외호세력으로 인식됐다.

『법보신문』은 불교계 내의 여성 차별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1990년 7월 ‘불교계 여성 지도자가 없다’는 1면 기사를 시작으로 여성 불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특히 1992년 11월 2일자를 시작으로 9회에 걸쳐 ‘불교의 여성관 - 성의 속박에서 평등으로’이란 제목으로 해주 스님이 여성성불 의미, 초기경전 속의 재가여성상, 여성출가와 비구니교단, 장로니들의 수행과 득도, 불신관(佛身觀)의 변천과 여성성불, 대승경전에 보이는 여성상, 중국 전등사에 보이는 여성들, 한국불교사를 통해본 여성불자, 현대여성과 한국불교 등 여성불교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로도 출·계가 여성불교 단체 및 여성불자의 활동을 꾸준히 소개했으며, 지금까지도 여성불교는 『법보신문』 지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이와 함께 이기영, 리영희, 고은, 박완서, 이이화, 도법 스님, 신경림, 윤청광, 공종원, 박성배, 백경남, 한승원 등 뛰어난 논객과 문인들이 담당했던 「법보정론」, 「법보시론」 등도 불자들에게 불교와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를 제시했다.

『법보신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주력했다. 1994

14) 『법보신문』 1994년 6월 6일자에 따르면 1994년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총 18,789,320원의 후원금이 담지했다. 편집국뉴스 제작·발송비·교통비 등에 11,381,950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7,407,370원은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전달해 1993년 10월 27일 별세한 『법보신문』 선원빈 편집국장의 이름을 딴 ‘선원빈기자상’을 신설, 불교언론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회향했다.

15) 『법보신문 중단개혁 “큰공”』, 『한국일보』 1994년 4월 14일자.

16) 1991년에는 하춘생 기자가 교계 언론 최초로 비구니스님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비구니’를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연재했으며(1991.1.28.~1991.12.9.), 2016년에는 남수연 기자가 ‘한국불교 비구니 리더’라는 제목으로 약 15개월간(총 27회) 격주로 원로 비구니스님을 취재해 전면에 다뤘다(2016.1.1.~2017.3.22.).

년 르완다 난민 돕기, 1995년 거룩한 만남, 1996년 북한동포돕기, 2001년 통일 자비릴레이 캠페인, 2002년 콩고난민 돕기, 2003년 무의탁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한국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불교여론을 선도해나갔다.

그러나 『법보신문』도 불교계의 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불국사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은 신문사의 안정된 운영에 크게 기여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여부에 따라 신문사가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했다. 첫 위기는 1993년 4월 1일 『법보신문』 직원들이 불교계에선 처음으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4월 3일 종로구청에 설립신고를 마치면서부터다. 직원들은 고용 안전,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지원 사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노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불국사는 “만성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통보됐다. 신문 발간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불과 몇 해 만에 괄목할 성장을 해왔던 『법보신문』이 폐업에 내몰림에 따라 세간의 관심으로 모았다.¹⁷⁾ 『법보신문』 폐간에 따른 교계 안팎의 여론이 극히 악화됨에 따라 당시 발행인이었던 종원 스님은 4월 11일 “그동안 각지의 스님들로부터 『법보신문』의 필요성과 영향력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폐간 철회의사를 밝혀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법보신문』이 제14대 대선정국과 훼손사건 당시 불교계 여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에 폐간 철회가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¹⁸⁾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정상화된 『법보신문』은 5년 뒤인 1998년 8월 불국사 주지 교체 이후 “3개월 해고예고” “신문사 출입금지” 등 조치가 단행되고 이

17) “『법보신문』은 개혁을 주장하면서 현 총무원체제에 반기를 든 이념가들의 결집장 노릇을 해 ‘법보사단’이라는 별칭을 낳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최고부수 2만7천여 부를 기록하는 등 조계종이 직영하는 불교신문과 쌍벽을 이루면서 개혁지향지로서의 위상을 굳혀왔다. 그러나 올해초 구성된 10대총회를 전기로 세력판도가 현 총무원 쪽으로 기울자 광고수주격감 등 재정압박이 표면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법보신문』 폐업 소식이 나돌자 총무원 안팎에서는 불국사쪽이 효용 가치가 떨어진 신문 적자를 밀미로 용도 폐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불국사 내부에서는 아직 폐업 여부에 관해 견해차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파동 법보신문 폐간 모면」,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3일자.

18) 「노조파동 법보신문 폐간 모면」,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3일자.

에 맞서 “언론탄압”을 주장하며 다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¹⁹⁾ 그리고 2005년 11월 9일 새로운 발행인 종상 스님이 『법보신문』 재산권 및 운영권 일체를 직원들에게 전격 이양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특정 사찰이나 종단의 독점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사부대중 모두가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립 언론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법보신문』의 독립은 불교언론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독립 언론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중단됨을 뜻했다. 그 문제를 타개할 해답은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이 천명했던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라는 창간 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봉행(信受奉行)하며, 비판과 자비의 양 날개를 견지하고, 치우침 없이 공정한 언론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본령이며 그럴 때 불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보신문』은 2005년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법보신문』 새 출발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부정과 불의, 부패와 타협하지 않을 것,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태도를 견지할 것, 불우하고 소외된 힘없는 이들의 후원자가 될 것,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을 대중 앞에 약속했다.²⁰⁾

2. 독립언론의 길(2006~2021)

『법보신문』은 독립 후 바람직한 수행·신행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2006년 ‘7인 선사 초청법회’, 2008년 ‘5인 선사 초청대법회’ 및 ‘5인 대강백 초청법회’를 열었으며, 2013년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힐링 멘토인 법륜, 정목, 마가, 혜민 스님을 조계사에서 초청해 힐링 열풍을 주도했다. 2014년 『법보신문』이 조계종 신행수기를 기획, 발의, 시행한 것도 매우 뜻깊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공동주관하는 신행수기 공모에는 매년 수백 명이 참여하면서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자답게 삽시다’ 캠페인을 전개해 불자들의 신행이 사찰을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교학자들의 논의 과정을

19) 『법보신문이 흔들린다』, 『한겨레신문』 1998년 9월 12일자.

20) 『법보신문 독립언론 새 출발 공표』, 『법보신문』 2005년 12월 28일자.

거처 선정한 37개의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집·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그 결과 그해 ‘불자답게 삼시다’에 82,055명이 동참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6년부터는 매월 불교미술사학자와 떠나는 ‘삼국유사 성지순례’를 기획해 3년간 실시했으며, 부탄·스리랑카 등 불교국가 성지순례를 열어 신심고취와 불자들의 건문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2008년 1월 시작한 ‘이주민에게 희망을 보시 합시다’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인 200만 명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을 돕는 새로운 시도였다. 매달 모금운동을 전개해 2015년까지 약 10억 원의 성금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다. 2016년 8월,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을 출범해 2021년 8월 현재 17개국 160여명 각각에 300만원~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에는 일일시호일이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단체로 선정됐으며, 향후 지원·위탁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보신문』 주최로 2019년 12월 1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몽골, 줌머인(방글라데시) 등 8개 국가의 법당 및 공동체들이 참여하는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를 창립해 이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다.²¹⁾

『법보신문』은 출판을 통한 전법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1991년 『깨침의 미학』, 『큰스님』을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출판을 했지만 2014년에는 도서출판 모과나무를 설립해 이를 본격화했다. 『불교, 기독교를 말하다』, 『성철평전』, 『한국의 사찰술』, 『마음밥상』 등 40여 종이 넘는 책을 펴냈고, 불교출판계 최고상인 불교출판문화대상과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다수 선정되는 등 불교전문출판사로 성장했다. 2020년 6월 모과나무와 조계종출판사의 합병을 통해 『법보신문』은 출판 관련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등 일체를 조계종출판사에 양도하고, 출판사 주식 30% 양도, 출판사 대표이사 추천권 및 대표이사 경영권 보장 등 항목에 합의해 출판사업의 전문성과 영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시작으로 법보신문을 교도소, 군법당, 관공서 등에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법보신문』은 독립 후 소외 이웃돕기, 실행과 전법에 매진하되 불교계 안팎에서 잇따르는 훼손과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이명

21) 「이주민 향한 편견 허무는 마중물 되겠습니다.」, 『법보신문』 2019년 12월 11일자.

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 봉헌”,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부인의 범명 거짓말을 보도하는 등 불교편향을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시스템인 ‘알고가’에 사찰이 누락된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경기여고에서 일어난 불교문화제 매립 사건도 가장 먼저 보도해 심각한 종교편향의 실태를 알려나갔다. 종교편향에 대한 잇따른 보도들은 2008년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20만 불자들이 동참해 정부를 규탄하는 범불교도 대회로 이어졌으며, 『법보신문』은 이 같은 공로로 그해 12월 17일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2014년 4월 한국연구재단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 선정과정에서 기독교와 가톨릭은 포함하면서 불교는 배제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심층 취재했다.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5월 20일 종교분과 불교학 전문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약속했다. 또 기독교계가 자행한 전국 사찰에서의 ‘땅 밟기’, 인도 마하보디 사원 대담 훼손행위를 비롯해 올해에도 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3월말까지 크리스마스트리를 존속하는 행위, 국·공립 합창단 찬송 공연, MBC의 나눔의집 편파 방송 집중 보도, 해외순방 때마다 성당을 들러 자신의 종교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가톨릭 행보, 남한산성과 천진암 등을 잇는 경기도 광주시의 가톨릭 순례길 조성 심층 보도 등 공권력·방송사의 종교편향과 타종교계의 훼손행위로부터 불교를 외호하는 데 앞장섰다.

불교계 내부의 자정 노력에도 크게 공헌했다. 2007년 4월,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종헌종법을 무시한 산중총회를 잇달아 강행하고 해당 말사 주지의 동의 없이 측근을 조계종 총무원에 말사주지로 품신 신청을 하는 등 제주불교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종단의 대응을 비롯해 지역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개혁요구, 소송과정 등 4개월간 50여 건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룸으로써 특정인이 좌지우지했던 ‘회주 중심제’를 폐지하고 제주 관음사가 정상화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07년 2월, 조계종유지재단이 위탁받아 부친 석왕사가 운영하던 부친 스포피아에서 발생한 억대의 공과금 미납분 등을 조계종에 떠넘겨 중단 복지사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받은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2009년 4월 또다시 부친 스포피아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석왕사 주지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계종 유지재단의 통장이 압류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이로 인해 긴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2011년 법원이 『법보신문』의 비판보도가 정당했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2008년에는 태고종 총무원장이 사찰을 교회에 매각한 사건을 비롯해 각종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태고종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0년에는 당시 해인사 주지의 부동산매각과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고불암 무량수전이 경매에 넘어간 일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법보 총찰의 파행을 막고자 했다. 2010년에는 값싼 납·FRP 소재의 불상이 매년 10만여 건이나 유통되는 상황과 이것이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해 예배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관련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도 직접 개최해 이 같은 그릇된 관행을 끊고자 했다.

2013년에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기사를 연이어 다뤘으며, 2014년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의 파행 운영과 폭언을 고발하는 기사들을 보도해 불교학술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2012년 선학원 이사장이 불통과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법보신문』은 온갖 소송을 감수해가며 이사장과 10여명의 이사들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을 통해 분원장을 옹아매고 이의제기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비불교적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10여 년째 다루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문화재청이 연등회를 일제강점기 이후 정통성이 훼손됐다면 문화재지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보신문은 연등회의 기원, 전래과정 등을 조명한 기획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문화재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결국 문화재청은 이 같은 불교계 여론을 수용해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으며, 법보신문은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보신문』은 지성불교 견인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2009년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대승경전을 불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사상사에 대한 무지와 폐쇄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며, 아함경과 니까야 또한 붓다의 친설로 볼 수 없다”는 과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마성 스님, 전재성, 황순일, 조성택, 안성두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논쟁에 동참하면서 불교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들을 받았다.²²⁾ 또 『불교평론』이 2015년 여름호(통권 62호)에서 특

22) 조인숙, 「불설과 비불설 논쟁에 관한 소고」, 『문학/사학/철학』 제18호, 2009.; 황

집으로 다룬 ‘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에서 대승불교 정체성·기복불교·사띠·민족 불교 논쟁 등 『법보신문』 지면을 통해 이뤄졌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가 절반이어서 『법보신문』이 지성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0년 11월 전국선원수좌회가 해인사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된 “좌선일변도의 수행만으로는 못 깨닫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한 기사 및 관련 기고들을 통해 한국선수행의 새로운 변화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³⁾

이 같은 노력은 한국불교를 외호하고 불교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로 이어졌다. 『법보신문』 논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보광 스님의 평가는 『법보신문』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이자 향후 지향점이며, 『법보신문』이 월산 스님의 창간 이념을 유지·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

『법보신문』은 파사현정의 기치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누가 대단히 미워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만다. 어느 누구도 말하기를 기피하는 것을 과감히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훼불행위를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불교가 큰일 나겠다 싶은 것을 가려서 파헤친다. 불교를 상처내기 위해서나 혹은 어느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를 올바른 정법으로 인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펜을 잡는다. 그래서 그들의 논지는 반드시 불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는 길만을 선택하고 있다.²⁴⁾

순일, 「초기불교의 시원론 논쟁」, 『불교평론』 62호, 2015.

- 23) 「좌선 일변도 수행만으로는 못 깨닫는다」, 『법보신문』 2020년 11월 25일자.; 윤창화, 「전등록 1000여 선승 중 좌선하다 깨달았다는 이가 있다」, 『법보신문』 2020년 12월 16일자.; 윤창화, 「한국 선은 지금 지독한 ‘좌선병’에 걸려 있다」, 『법보신문』 2021년 2월 3일자.; 일진 스님, 「한국 스님들 못 깨닫는 결정적인 이유 있다」, 『법보신문』 2021년 2월 10일자.; 윤창화, 「한국선불교는 불립문자 곡해해 무지 정당화했다」, 『법보신문』 2021년 3월 10일자.; 윤창화, 「선원에서 자취 감춘 법거랑 … 지금 한국선이 위협하다」, 『법보신문』 2021년 6월 23일자.
- 24) 보광 스님, 「법보신문이 사랑 받는 이유」, 『법보신문』, 2009년 6월 3일자. 보광 스님은 이 글에서 “법보신문은 나에게 오면 일단 난도질을 당한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다른 대중들이 볼 수 없을 경우가 많다. 이리 오리고 저리 오려서 필요한 부분을 스크랩한다. 나는 어느 신문이나 잡지를 만나게 되면, 먼저 무엇을 스크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의 기준으로는 나에게 난도질을 많이 당하는 신문일수록 필요한 신문이다.”라며 『법보신문』의 자료

V. 맺는 말

『법보신문』은 격변의 시기에 탄생했고, 그동안 불교언론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보신문』 이후 『한국불교』, 『해동불교신문』, 『대한불교』, 『시대불교』, 『관음불교』, 『동국불교』, 『경기불교』, 『한라불교』, 『대구불교』, 『정토불교』, 『현대불교』, 『우리불교』 등이 잇따라 창간했다. 그러나 대부분 신문들은 재정난 등으로 2000년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됐으며, 종이활자의 사양 흐름 속에서 남은 신문들도 성장보다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법보신문』은 그동안 논란과 쟁점의 한가운데 뛰어들어 사안을 주도했으며, 그것은 재정적으로 기댈 곳 없는 독립언론의 숙명이기도 했다. 특징인, 특정사찰, 특정종단에 과도하게 치우칠 경우 스님들과 불자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 존립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설적인 비판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의 등장 속에서 종이 신문은 불교계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불교계 전체의 이익 실현이라는 두 축의 경계선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자칫 비판에 과도하게 치우치면 비판 그 자체 만에 몰두하고 수용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불교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법보신문』은 이를 인식하고 비판과 호교(護敎)의 경계선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불교계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되고자 노력했고, 다행히 다수의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과 한국불교기자협회의 한국불교기자상을 비롯해 재)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상, 묘엄불교문화재단의 묘엄불교문화상,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사회복지언론상, 재한준머연대의 감사장, 주한네팔대사관 감사패, 재대한민국 스리랑카 대사·일동의 감사패 등을 받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월산 스님은 발행인 창간사에서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곱힘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는 목탁을 만들었다. … 『법보신문』은 목탁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법보신문』이 불교적인 정체성²⁶⁾

가치도 높이 평가했다.

25) 김관규, 「불교언론, 어떻게 비판해야 하나」, 『법보신문』 2015년 11월 4일자.

26) 『법보신문』은 불교정체성 강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전 직원들이 법당 겸 다실에 모여 법회를 여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또 매달 1회 전 직원들이 참여해 불서 등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자를 비롯한 신입사원의 경우 불교교양대학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과 불교언론의 사명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하며, 사훈인 ‘존경진리, 굴복아만, 공명정대’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법보신문』은 단순히 신문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불자들이 행복하고 불교계가 건강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불교언론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초대 발행인 월산 스님과 그동안 『법보신문』 창간을 이끌고 유지해왔던 이들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월산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88.
- 김순석,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 김관규, 「불교언론, 어떻게 비판해야 하나」, 『법보신문』 2015.11.4.
-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 김정휴,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큰스님 신춘인터뷰」, 『법보신문』 1991.1.1.
- 김정휴,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큰스님 신춘인터뷰」, 『법보신문』 1990.1.1.
- 덕민 스님, 「월산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토론문,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 보광 스님, 『법보신문』 2009.6.3, 「법보신문이 사랑 받는 이유」
- 운성 스님,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대각사상』 제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 월산 스님, 『법보신문』 1988.5.16, 창간사, “대자대비의 등불 밝힐터…”.
- 조인숙, 「불설과 비불설 논쟁에 관한 소고」, 『문학/사학/철학』 제18호, 2009.
- 황순일, 「초기불교의 시원론 논쟁」, 『불교평론』 62호, 2015.
- 『법보신문』 2018.11.28, 「창간 30주년 특별인터뷰 -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부문사장」
- 『월간 해인』 31호(1984.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 월산」
- 『한겨레신문』, 1993.6.13, 「노조파동 법보신문 폐간 모면」
- 『한겨레신문』 1998.9.12, 「법보신문이 흔들린다」
- 『한국일보』, 1994.4.14, 「법보신문 중단개혁 “큰 공”」
- 「언론기본법」,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Abstract

Ven. Wolsan and 『Beopbosinmun』

Yi, Jae-hyung

(Beopbosinmun editor-in-chief)

Ven. Wolsan is a representative of a respectable monk who entered Seon School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n Buddhism and developed Korean Buddhism. Wolsan opened the Seon Center and Buddhist Priesthood University to train many disciples and tried to renovate the temple, which had become turbi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also served in major positions of Jogye Order such as President of the Jogye Order, speaker of the central council, speaker of the elders council. In addition, Wolsan's distinct achievement is the publication of 『beopbosinmun』,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Wolsan's life that cannot be overlooked.

Wolsan, the first publisher, launched 『beopbosinmun』 on May 16, 1988 and clearly presented the direction of 『beopbosinmun』 with the motto of 'respect for truth, overcoming self-righteousness, being fair and just'. It meant accepting the teachings of the Buddha, surrendering the self-righteousness that prevails inside and outside the Buddhist world, and revealing and spreading the right things. In addition, Monk Wolsan has to purify himself in his founding speech, the four major directions: 'The nation must stand upright' 'Unity must be achieved' and 'The light of Maha-maitri-karuna must be lit.' presented

This goes beyond criticism, the role of the Buddhist media as a magistrate recording modern Buddhism, the role of a magistrate who spreads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leads a desirable practice and culture of practice, and the role of Buddhist Guardians in responding to hostile acts against Buddhism within and outside the Buddhist community.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the strict meaning of fulfilling the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of Korean Buddhism that suggests specific directions.

『beopbosinmun』 has led the Buddhist reforms with bold criticism of the evils of the Buddhist world since its inception, and tried to spread the Buddha's teachings everywhere. Embracing the belief in ups and downs, but not staying in the ups and downs, led them to advance toward intellectual Buddhism, ascetic Buddhism, and Juche Buddhism. He also faced hostile acts against Buddhism and tried to seek and suggest alternatives beyond criticism. In the process, sympathy, encouragement, criticism, and reprimand followed, and there were endless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nd several crises of bankruptcy.

In the publisher's founding address, Wolsan said, "I made a moktak that never sleeps, does not rest, is not lazy, does not bend, does not fall, and does not break. ... 『beopbosinmun』 will become a moktak and will last forever." This is possible when 『beopbosinmun』 does not lose its Buddhist identity and the mission of the Buddhist media, and it is also a concrete practice of its motto, 'respect for truth, overcoming self-righteousness, being fair and just'. 『beopbosinmun』 does not simply aim at making newspapers and writing articles. Its purpose is to become a significant Buddhist journal that contributes to making a world where Buddhists are happy and the Buddhist community is healthy and a better place to live. It is also to meet the noble will and expectations of Wolsan, the first publisher, and those who have led and maintained 『beopbosinmun』.

Key words

Ven. Wolsan, beopbosinmun, Buddhist press, respect for truth, overcoming self-righteousness, being fair and just, Ven. Jeonghyu, independent press